《傳教秩》 解題

洪 順 敏

'奎章閣'은 원래 1694년(숙종 20년)에 역대 왕들의 御製를 보관하기 위하여 宗正寺에 소각을 짓고 붙인 이름이다. 이 때의 규장각은 단지 어제류를 보관하는 기능만을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장각을 보관 기능에서 나아가 학술 연구기능, 왕의 자문 기능 등을 추가하여 주요 정치 기구로 부상시킨 이는 정조였다. 정조는 즉위하면서 창덕궁 내의 후원에 2층 건물을 지어 위 층을 宙合樓, 아래 층을 御製尊閣이라 하여 講學과 왕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삼았다. 또 그 옆에는 서재로서 書香閣을 지었다. 그러다가 어제존각을 왕 자신의 御眞, 御製, 御筆, 寶册, 印章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바꾸어 奎章閣이라 이름을 붙이고, 역대 선왕들의 유품들은 奉謨堂이라는 건물을 지어 보관하였으며, 서고로서 閱古觀, 皆有窩를 짓고 후에 국내 서적을 보관할 西庫 등을 더 지었다. 이로써 규장각이 하나의 관서로서의 기틀을 잡았다.(1)

정조 5년에 이르러서는 제학을 비롯한 규장각 관원들을 주로 홍문관원이 겸하게 하여 결국 왕의 측근에서 함께 학문과 현실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近侍職이 규장각으로 집중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장각의 집무소인 摛文院을 창덕궁내 仁政殿 서편, 출입이 비교적 편리한 곳으로 옮겼다. 규장각 관원들은 승정원의 비서 기능, 홍문관 예문관의 知製敎, 史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비롯하여 科擧와 抄啓文臣 선발을 주관하기도 하였으며 관원들을 탄핵하는 등 일반 정사에도 폭넓게 관여하였다. 이렇듯 규장각은 정조가 蕩平策을 추진하는 데 중심 기구가 되었다. 본래의 규장각을 內閣으로 부르는 데 대해 일반 서적 간행을 담당하는 관서인 校書館을 규장각에 포함시켜 外閣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규장각의 기능이 이렇게 폭넓어지고 커짐에 따라 그 보관 기능은 학술기능이나 정치적 기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관 기능 자체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 정조는 문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의 서적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규장각에 맡기었다. 이렇게 수집된 장서가 정조 5년 무렵에는 3만여권에 달하였다. 이러한 장서 가운데서 본래 규장각 설치의 목적이었던 왕과 왕실에 직접 관련되는 서적이나 그림, 물건들은 정조의 왕권 강화 노력에 비례하여 그 의미가 더욱 크게 평가

---

* 필자 : 성심여대 국사학과 강사

(1) 이태진, 1990 《奎章閣小史》 서울대학교 도서관 참조

되었다. 규장각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왕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들을 규장각, 봉모당 외에 별도의 곳에 더욱 격을 높여 보관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정조 5년 3월 규장각, 봉모당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 일부를 옮겨 보관할 곳으로 설치된 것이 강화도의 '外奎章閣'이다.(2)

강화도에는 史庫가 있어서 선원록과 실록 등 국가의 주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고와는 별도로 강화읍의 행궁에는 別庫가 있어서 당대 왕의 敎命과 冊寶, 역대 왕의 어제, 어필 및 각종 서적, 그림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별고는 효종대에 강화를 국방상의 요충으로 설정하여 성벽 등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것이다. 이 건물은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귀중한 책자들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제모습을 잃어버렸으며 그곳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조차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교명이나 책보를 새로 奉藏할 때는 일개 中官(환관)이 궤짝에 넣어 말에 싣고가서 넘겨주는 형편이었다. 이는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봉안하는 의례와는 크게 격차가 나는 일이었다.(3)

정조는 규장각이 하나의 기구로서 틀을 잡은 직후인 5년 3월 10일 강화도에 무기를 별도로 저장하는 일로 강화도에 관해 조사하던 중 그 곳에 어제, 어필 등 각종 왕 관련 자료가 많이 있다는 것과 그 관리 상태가 매년 일개 中官을 보내어 포쇄하는 데 그치는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막 틀이 잡힌 내각(규장각)에서 그 관리를 맡도록 하고, 강화 유수와 협의하여 봉안 절차에 관한 事目을 마련하여 준행하도록 명령하였다. 본 《전교질》은 정조 5년 신축 3월 10일 이러한 정조의 명령에서부터 그 이듬해 4월 2일 책보, 어제, 어필 등을 봉안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규장각' 건물은 정조의 명이 내린지 일년 남짓 지난 정조 6년 임인 2월에 강화부내 행궁의 동쪽, 長寧殿의 서쪽 燕超軒이 있던 터에 6간 규모로 완공되었다. 그 무렵인 2월 14일부터 이 건물로 왕대비(英祖妃 : 정순왕후 김씨), 혜경궁 홍씨 그리고 정조 자신의 玉冊과 金寶를 비롯하여 봉모당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던 御製 및 璿源譜略, 列聖誌狀 등의 책자를 옮기기로 하여 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서울에 있는 주요 물품을 옮기는 것과 아울러 각 사고에 흩어져 있는 어제, 어필도 모두 이 건물로 옮기도록 조치하였다. 그 옮길 때의 의례는 이전에 일개 중관이 혼자 가져가던 것과는 달리 선원록과 실록 봉안할 때의 事目을 참작하여 提學이나 直提學 가운데 한 사람과, 直閣, 待敎 가운데 한 사람을 책임자로 정하고 司卷, 領籤 가운데 한 사람, 檢書官 가운데 한 사람을 실

(2) 강화의 '외규장각'은 정식 관서라기보다는 보관소의 기능을 갖는 것이었다. 그 건물의 편액은 '外奎章閣'이라고 써붙인 듯하나 (《傳敎秩》 신축 3월 11일조) 혹은 '규장외각'이라고 하여(《규장각지》 建置 第一 內閣 附江都外閣), 교서관을 규장각의 외각이라고 하는 것과 혼칭하기도 하였다.

(3) 강화의 별고와 외규장각 설치 경위에 대해서는 《奎章閣志》 권 1 建置 第一 규장외각조와 이태진, 1991 〈강화도 外奎章閣 遺址 조사기〉 이 책 소수 참조.

무자로 정하였다. 그 밖에 胥吏와 營吏, 각종 호위 군사 등 여러 명을 동원하여 彩輦을 사용하여 복장과 군악 등에서 한껏 위의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관찰사와 지나는 길의 수령, 강화 유수등이 경계에 나와서 맞이 하도록 하였다.(4)

3월 20일에 4월 초2일을 봉안하는 날로 택일하고, 3월 29일에 봉안할 閣臣을 柳得恭으로 정하여 4월 1일 출발하였다. 김포에서 하루 밤 자고 이튿날인 4월 2일 강화에 도착하였다. 도착 즉시 강화유수 金煜과 강화에 와 있던 검교직각 金載瓚과 함께 외규장각 건물로 가서 책보들은 正閣의 奉安櫃 상, 중 양층에, 보략과 지장, 어제류는 하층에, 함께 가지고 온 《八子百選》 등의 책자는 西邊 冊架上에 안치하였다. 또 행궁에 보관돼 있던 왕대비의 옥책, 옥보도 가져다 봉안장 상층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정족산성 사고에 가서 어제, 어필을 가져 올 예정이었던 듯하나 이 책의 기록은 4월 2일자 보고에서 끝났다.

《전교질》은 주로 《內閣日曆》에서 외규장각에 관계되는 기사를 발췌하여 초서르 옮겨 적은 것이다. 분량은 전부 22장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내각일력》(규 13030)은 1779년(정조 3) 1월부터 1883년(고종 20) 2월까지 105년에 걸치는 규장각의 일기로서 1245책에 달하는 거질이다. 《내각일력》은 규장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으므로 규장각에 관한 일뿐 아니라 왕의 동정을 비롯하여 당시의 정치적 사정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 관찬 사료와는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부의 사정을 기록한 부분은 어느 자료보다도 상세하다. 따라서 외규장각 관련 기사 역시 《내각일력》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그것을 저본으로 하여 본 《전교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교질》은 그러나 단순히 《내각일력》만을 기계적으로 발췌하여 만든 것은 아니다. 《전교질》의 앞부분의 대체로 날자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모두 《내각일력》의 내용과 일치하나, 뒷부분에 가서는 《내각일력》에는 없는 승정원에서 장흥고에 이르기까지 20여 관계 관서로 보내는 통지문인 甘結, 경기 감영과 강화부, 그리고 연로 군현으로 보내는 關文, 路文, 담당 관원이 떠나면서 올린 출발 보고서인 肅單,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올린 보고서인 狀啓 등의 문서가 들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규장각의 《내각일력》 작성 담당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내각일력》에는 빠진 듯한데, 《실록》이나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에도 없다. 또 이러한 문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날자가 착종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 문서 원본을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해 보건대 《전교질》은 기본적으로 《내각일력》에서 외규장각 관계 기사를 발췌하여 작성하면서 관계되는 각종 문서들을 함께 끼워넣어 편집한 책이다.

외규장각에는 그 후로도 많은 책들이 계속 보관되었다. 그리하여 1806년 (순조 6, 병인)

(4) 《일성록》 정조 5년 신축 3월 10일; 《승정원일기》 제1482책 정조 5년 3월 초 10일

에는 거의 천여 종에 이르는 책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5] 정조 초년 당시에는 왕대비(영조비 정순왕후 김씨)와 혜경궁 홍씨 그리고 정조 자신의 옥책, 금보를 보관하는 것이 주였으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순조 초년에는 역대 왕의 尊號, 徽號 追崇, 실록 수정, 祔廟, 尊崇, 嘉禮, 册禮, 國葬, 山陵, 魂殿 등에 관한 儀軌류를 비롯하여 궁궐 중수, 錄勳, 胎室에 관한 의궤, 병풍, 족자, 그림, 그리고 어제, 국조보감 등 왕실에 관련되는 책자 뿐 아니라 그밖에 개인 문집, 중국 서적, 宮家寺刹奴婢推刷案 등 실로 방대한 분량의 귀중한 책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외규장각은 이러한 책자들을 유사시에 대비하여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다시 서울로 가져가서 새로운 책을 편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역할도 겸하였다. 그러나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당하여 그 존재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확인 조사가 이루어진 정도이다.[6]

이 《전교질》은 이러한 외규장각의 설치, 운영 경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 정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전교질》은 정조 당대 규장각 운영의 일단을 헤아리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료의 보관 및 이용 사정과 더 나아가 《외규장각 형지안》 등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병인양요에 의해 훼손되고 약탈당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복구하는 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자료이다.

---

(5) 외규장각형지안 (규 9129) 참조.
(6) 이태진, 1991 〈강화도 外奎章閣 遺址 조사기〉 이 책 참조.